



백삼위 한인성당

2701 W.237th St. Torrance, CA 90505
 www.103skcc.org 103skccusa@gmail.com

주임신부 626-215-7224
 전교수녀 213-804-9151
 평협회장 310-408-1443
 연령회장 310-749-8942
 사무실 310-326-4350

주일미사	주일전날저녁	오후 7시	평일미사	월,화	미사없음
	아침미사	오전 7시 30분		수	오후 7시 30분
	가족미사	오전 9시 30분		목,금	오전 9시 30분
	교중미사	오전 11시		첫 토요일	오전 9시 30분
고해성사	평일 · 토요일 미사 30분 전				

사무실 업무시간	
월,화,토	휴무
수,목,금	8:30am - 12:30pm
주일	8:30am - 12:30pm

(다해) 연중 제14주일

입당 : 희망의 순례자들 파견 : 6

거룩한 시간 (2)

화답송 Responsorial Psalm

저 녀

◎ 온 세상이,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시편 66, 1-3, 4-5, 6-7, 16, 20)

- 온 세상이,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그 이름, 그 영광을 노래하여라. 영광과 찬양을 드려라. 하느님께 아뢰어라. “당신이 하신 일들 놀랍기도 하옵니다!” ◎
- “온 세상이 당신 앞에 엎드려, 당신을 노래하게 하소서. 당신 이름을 노래하게 하소서.” 너희는 와서 보아라, 하느님의 업적을, 사람들에게 이루신 놀라운 그 위업을. ◎
- 바다를 바꾸어 마른땅 만드시니 사람들은 맨발로 건너갔네. 거기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기뻐하네. 그분은 영원히 권능으로 다스리신다. ◎
- 하느님을 경외하는 이들아, 모두 와서 들어라. 그분이 나에게 하신 일을 들려주리라.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당신 자애를 거두지 않으셨으니, 하느님은 찬미받으소서. ◎

◎ Let all the earth cry out to God with joy.

(Psalm 66:1-3, 4-5, 6-7, 16, 20)

- Shout joyfully to God, all the earth, sing praise to the glory of his name; proclaim his glorious praise. Say to God, "How tremendous are your deeds!" ◎
- "Let all on earth worship and sing praise to you, sing praise to your name!" Come and see the works of God, his tremendous deeds among the children of Adam. ◎
- He has changed the sea into dry land; through the river they passed on foot; therefore let us rejoice in him. He rules by his might forever. ◎
- Hear now, all you who fear God, while I declare what he has done for me. Blessed be God who refused me not my prayer or his kindness! ◎

저녁에도 신비가 깃들인다. 죽음의 신비가 그것이다. 날이 저물면서 사람은 잠의 침묵으로 들어갈 채비를 한다. 아침 시간은 새로워진 생명의 정기에 차있었다. 그러나 저녁이 되면 삶이 고달프고 휴식을 찾게 된다. 여기 죽음의 신비가 메아리쳐 온다. 우리는 그 소리를 못 듣는 수가 많다. 아직도 현실생활의 이모저모와 내일을 위한 온갖 소원과 계획으로 마음이 온통 부산하기 때문이다. 그러다가도 어떤 때는 멀리서 나는 소리처럼 어렵듯이 들리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 저녁에 “아무도 더는 어쩔 수 없는” 어둠으로 삶이 기울어감을 느끼기도 한다. 이것은 모두 우리가 죽음의 신비를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 죽는다는 것은 한 삶이 끝나감을 뜻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죽음은 바로 이 삶의 마지막 부름이다. 죽음은 삶의 더할 수 없고 결정적인 행위이다. 한 개인이나 한 겨레의 일생에 일어나는 일은 그냥 그것으로 그치거나 결판나는 법이 없다. 문제는 언제나 한 사람이나 겨레가 그 일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있다. 사건도 어떤 태도로 응하느냐에 따라 이미 일어난 일에서 좋든 나쁘든 무언가 새로운 것을 자아내게 마련이다. 가령 어떤 겨레가 크나큰 고통을 겪었다고 하자. 일어난 일은 분명 어차피 일어난 일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은 아직 아니다. 온 겨레가 실망해 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생각을 돌려 새로 출발할 수도 있다. 그제서야 벌써 부터 일어난 일이 마무리된다.



▶ 천상의 어머니 꾸리아 월례회

일시 : 7월 6일(주일), 교중미사 후

장소 : 강당

▶ 안나회 모임

일시 : 7월 13일(주일), 교중미사 후

장소 : 소회의실

▶ 2025년 희년(Jubilee) 캠페인

1) 미사시간 10분 전 도착하기

2) 성당 안에서 침묵하기

3) 단정한 복장으로 미사참례하기

우리들의 정성

교 무 금 \$ 10,315.00	강규영	강인모	고천용	구자운	금동군	김관기	김교복
주일헌금 \$ 2,416.00	김금자	김병록	김병학	김상규	김성현	김영재	김 욱
감사헌금 \$ 500.00	김원모	김정웅	김주연	김총섭	김태은	김현숙	나경흠
2차 헌금 \$ 5,160.00	남성철	남혜원	문성길	박운모	박정자	박준범	박진희
미사예물 \$ 3,193.00	배난균	백필녀	서용숙	송슬기	송인선	송현지	신동윤
합 계 \$ 21,584.00	엄세종	오세원	오영섭	위진록	유경자	윤희동	이영석
	이윤희	이은애	이정미	이정훈	이피스	이현창	임종택
	장영우	정기은	정명모	정은아	정종미	조소영	조영우
	최민아	최성자	한영분	한창주	현석주	김교복	